

영남권 경제적 성장·쇠퇴의 시공간적 패턴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nd Decline in the Youngnam Area

박성근(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시간강사, skpark@korea.ac.kr)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국가적 차원의 공업구조 고도화정책으로 인하여 중화학공업이 집중 배치된 영남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1980~2000년간에 영남권에서 나타난 경제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을 중심—주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인자분석을 행하여 지역경제성장·쇠퇴의 기본적 차원을 추출하였으며, 또한 인자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인자특점행렬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행하여 경제성장·쇠퇴지역을 유형화하였다.

1980~2000년간에 영남권에서 나타난 경제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은 강력한 경제성장중심지인 부산 중구와 대구 중구를 비롯한 일부 구급지역들이 인구 및 서비스업에서 쇠퇴양상을 보인 반면, 부산·울산, 대구·구미, 마산·창원, 포항·경주, 내부와 주변

10~40km권에서 인구 및 서비스업의 성장지역이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는 부산·대구·구미의 15~40km권, 마산·창원의 10~30km권에 다수의 성장지역들이 나타났다. 또한 창원시·김해시·거제시·신현읍·양산시·웅상읍·달서구·논공읍·화원읍·내서읍·다사읍 등은 제조업과 인구 및 서비스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농업지역의 경우 탈농업화는 2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농촌지역의 농경지면적이 급감하였다. 탈농업화는 경지면적 1ha 미만의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야지대 보다도 경북·경남의 산간지대에서 탁월하였다. 이러한 탈농업화의 영향으로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영농의 대형화가 다소 진척되었다. 한편 경지면적의 경우는 발면적 보다 논면적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경영형태가 벼농사 중심에서 환금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보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1980~2000년간에 영남권에서 나타난 경제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은 두 중심의 15~40km권내에서 선택적이지만 경제적 균등화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그 외곽지대와의 경제적 불균등 양상은 한층 심화되었다.

상술한 경제적 성쇠의 변화양상을 검토한 결과 성장과 쇠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다면 Myrdal의 순환·누적적 인과관계론에 부합되며,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성장·쇠퇴의 패턴이 중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Friedmann의 중심—주변모델에 부합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riedmann의 중심—주변모델에 기초하여 영남권의 경제적 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는데 영남권에서는 성장지역·정체지역·쇠퇴지역으로 나타났다.